

성경은 그리스도의 순종(능동/수동)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

최갑중¹⁾

I. 그리스도의 능동, 수동 순종 논쟁, 무엇이 쟁점인가?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미국 Evangelia 대학교에서 신약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최갑중 교수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3차례에 걸쳐 강의하려는 것은, 최근 한국 신학계와 교계에서 제기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에 대한 논쟁과 관련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결국 성경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최근의 그리스도 능동, 수동 순종 논쟁과 관련하여 무엇이 쟁점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로마서 3:21-26과 5:17-19의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에서는 창세기 2:17, 레위기 18:5, 갈라디아서 3:12, 로마서 8:2-4를 중심으로 율법의 용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의 율법 성취(순종)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이 강의의 주요 내용은 2023년 상반기에 CLC 출판사를 통해 출판되는 저의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로 보는 그리스도의 순종, 능동적인가, 수동적인가?』에서 발췌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몇 년 사이에 한국 장로교단에서 중요한 신학적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인 그리스도의 순종을 능동과 수동의 양면적 순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수동적 순종 한 면만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그리스도께서 그의 전 생애를 거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 율법 순종에 약속된 영생의 공로(의)를 획득한 능동적 순종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속죄를 완성한 수동적 순종으로 구분하고,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십자가 순종)의 의만이 아닌, 또한 능동적 순종(전 율법 순종)의 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 웨스트민스터 신조와 루터와 칼빈 및 많은 정통 개혁신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능동, 수동 두 순종을 주장하는 합동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김병훈 교수님은 2021년 5월 20일 자 「기독교개혁신보」에 실린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의 전가”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 최갑중 교수의 간략한 약력은 다음과 같음.

1969-1977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B.A. & M. Div.)
 1982-1986 Reformed, Calvin,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ies 수학 및 졸업(M.A. Th.M.)
 1989-1998 Iliff School of Theology & University of Denver 졸업(Ph.D. in Biblical Studies)
 1992-2017 백석대학교 신약학 교수
 2012-2014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회장
 2012-2017 백석대학교 총장
 2021-현재 Evangelia University, USA, 신약학 교수
 1992-현재 『주기도문』, 『예수님의 비유』, 『바울연구 I,II, III』, 『사도 바울』, 『로마서 듣기』, 『갈라디아서』, 『칭의란 무엇인가』, 『마태복음 산책』 등 20 여권의 책을 집필 출판하였으며, 『聖經과 神學』, 『신약연구』, 『신약논단』, 『목회와 신학』, 『성경원문연구』 등 저명 학술지에 3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음.

개혁신학의 주류는 통상적으로 그리스도의 순종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설한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obedientia passiva*)이며, 다른 하나는 능동적 순종(*obedientia activa*)이다...능동적 순종을 찬성하는 견해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한 순종은 “행하면 살리라”는 율법 규정에 따라 율법을 우리를 대신하여 성취하시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며, 이 결과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기 위하여 율법 규정을 따라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에서 자유롭게 한다. 그러나 수동적 순종만을 주장하는 견해에 따르면,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자신의 부패성으로 인하여 율법을 성취하여 생명을 이룰 수가 없게 되었으며, 율법의 순종을 통해 생명을 얻는 방식도 더 이상 없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도 죄인을 구원하고자 할 때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방식을 따라 행하실 수가 없다고 판단한다...능동적 순종에 의한 의의 전가를 주장하는 자는 전가의 의를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한다. 하나는 죄 사함이다. 곧 그리스도께서 그의 수동적 순종을 통해 죄값을 치르시어 죄책이 없다는(*insontes*) 선언을 얻게 되는 의미에서의 의이다.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성취하신 능동적 순종에 의한 의로써 의롭다는(*iusti*) 선언을 얻게 되는 의미에서의 의이다...그러나 수동적 순종에 의한 의의 전가만을 인정하는 자의 견해에 따르면 죄 사함이 전가되는 의이며, 죄 사함 이외에 전가되는 다른 의는 없다. 죄인은 오직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 곧 죽음에 의하여 획득된 의로 인하여서만 의롭게 여겨진다. 정죄는 범한 죄 때문에 받는 것이므로, 죄값이 갚아지면 의로운 자가 된다는 주장이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주장하는 총신 신대원 역사신학 김효남 교수님 역시 2022년 10월 18일 자 「총신원보」 279호에 투고한 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왜 성경적이며, 필연적인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왜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능동적 순종과 율법을 어긴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수동적 순종이 모두 필요할까요? 다시 타락 전 아담에게로 가봅시다. 앞서 우리는 아담이 무죄한 상태에서도 영생을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무죄한 자로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구원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동적 순종으로는 우리는 타락 전의 아담에게로 돌아갈 뿐, 영생을 위해서 필요한 의, 곧 율법을 완전히 지키므로 얻는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평생을 사시면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전가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주장자들이 주장하는 자세한 내용을 다음의 저서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1) 김재성.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과연 논쟁의 대상인가? 구원의 본질인가?』 서울: 언약출판사, 2021.
- 2) 엘런 스트레인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22.
- 3) 브렌든 크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22.
- 4) 김병훈 편집 및 집필.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의 전가』 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2022.

하지만 다른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전 생애를 통해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거룩한 삶을 사신 것은, 우리를 위해 의와 영생의 공로를 획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위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함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 순종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는 희생적 죽음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 용서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의가 다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완전한 율법 순종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율법 순종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볼 경우,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상대화시키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만을 주장하는 전 총신대학교 조직신학 서철원 교수님은 2021년 4월 7일 자 「기독신문」에 실린 “능동적 순종, 개혁신학적인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7세기 때부터 개혁과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2가지로 구분하여 전개하였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작정을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어 피 흘리심으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한 것과 그리스도가 입법자로서 율법 순종의 의무가 없는데도 자원하여 율법을 지켜 의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율법을 준수하여 의를 이룩하였으므로 그 의를 백성들에게 전가하여 백성들이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의무가 없는데도 자원하여 지켰으므로 이것이 능동적 순종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어 피 흘리심으로 백성들의 죄를 갚아 죄 용서를 받게 하였으므로 이것이 수동적 순종이라는 것이다...이 신학적 논의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갚아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여 영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피 흘리심으로 죄용서만 이룩하였을 뿐이고 그를 믿는 자들로 영생에 이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신 율법을 지켜 영생을 획득해야 했다. 이것은 신약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배치된다. 또 이런 구원 도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옆으로 밀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모든 신학을 판정하는 것은 성경이 한다. 아무리 아름답게 잘 구성된 신학이라고 하더라도 성경의 근거가 없으면 그 신학은 바르지 못하는 신학이라고 하여 배척하고 폐기 처분한다. 능동적 순종 주장은 아무런 성경적 근거와 지지가 없다. 그러므로 능동적 순종 주장은 폐기처분해야 한다.

역시 「형림서원(크리스찬타임스)」 대표 고경태 박사님은 2022년 6월 26일자, 김병훈 편집 및 집필,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의 전가』(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2022)를 비평하는 글,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의 전가>의 저술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정당성을 밝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부정하는 사람을 거부하기 위한 것인가? 저술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거부하는 사람을 비판하기 위한 저술로 보인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거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필자가 보기에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다. 구원 도식에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으로 나누어 제시한 것을 사변적 산물이라고 평가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그리스도가 율법준수로 얻은 의를 전가하여 택자들에게 영생을 수여한다는 주장”을 거부한 것으로 이해한다. 축약하면 “율법 준수로 영생을 획득함”에 대한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의 전가>는 저술을 “율법 준수로 영생을 획득함”을 정확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율법 준수(혹은 율법 순종)으로 영생을 획득함에 대해서 비판함을 인지해야 한다. 영생을 소유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 영생 획득함에 대한 구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주창자들의 자세한 주장 내용을 다음의 자료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Youtube

김태일. “능동 순종주의자들의 가장 큰 문제.”

김인수. “그리스도의 순종(능동 순종 논쟁).”

2) 저서 정이철, 『능동적 순종에 빠진 교회』. 서울: 다음, 2022).

잘 알려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동 순종, 수동 순종 논쟁은 처음에는 총신, 고신, 합신 신학대학원의 조직신학 교수들과 역사신학 교수들 사이의 논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장 합동, 고신, 합신 교단과 소속 목사님들 사이의 논쟁으로 변져가고 있습니다. 예장 합신 교단은 2020년 9월 105회 총회에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 교리는 개혁 교회의 정통교리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목사나 신학자들은 개혁신학에 충실한 분들입니다”라는 <합신 신학위 보고서> 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과 함께 능동적 순종 교리를 옹호하였습니다.

반면에 예장 합동 교단은 2021년 9월에 개최된 106차 총회에서, 합신 교단 105회 총회 결정과는 정반대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성경적 근거가 없다”라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에 개최한 107차 총회에서 106차 총회의 결정을 유지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와 관련된 논쟁을 신학부에 넘겨 1년간 연구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다른 한편 예장 고신 교단은 2022년 9월에 개최된 72차 총회에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를 거부한 합동총회와는 달리 그리스도의 능동, 수동의 두 순종 교리가 성경과 정통 개혁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7개 항의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 보고서를 총회의 신학 입장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신총회는 합신 총회와 같은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예장 합동, 합신, 고신 교단이 그리스도의 순종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결의하였다고 해서, 각 교단에 소속된 모든 목회자와 신학교 교수들이 한결같이 교단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합동 교단이 총회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반대하였지만, 교단 내 교수들과 목회자들 사이에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합신 교단과 고신 교단이 공식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다 받아들였지만, 신학교 교수들과 목회자들 사이에 이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입장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율법 순종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동적 순종을 다 같이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수동적 순종만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자체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수동적 순종의 완성으로 보아야 합니까?

최근의 그리스도 순종 논쟁의 핵심적인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의 해석 문제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순종의 해석 문제입니다. 전자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주창자들은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통한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으로부터 구분 내지 분리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율법 순종을 통한 영생의 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을 통한 사죄의 의, 이 두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주창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구원과 영생의 의가 충분히 마련되었으며, 이 하나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된다고 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의 율법 순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율법 순종은 그의 완전한 십자가 순종을 위한 예비적인 것일뿐, 우리의 의와 구원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자체가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값인 사망의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사건인 동시에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의 최고 강령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류에 대한 최고의 사랑

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주창자들, 수동적 순종주창자들 다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리스도의 최고인 능동적 순종인 동시에 최고의 수동적 순종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후자인 그리스도의 율법 순종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구약 율법 자체가 과연 순종하는 자에게 의/영생 수여를 약속하고 있는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주창자들은 창세기 2:17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다음 말씀한 레위기 18:5의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명령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7:2가 말하는 일종의 행위언약으로써, 그 명령에 순종할 경우, 영생이, 반면에 불순종할 경우 저주와 죽음의 심판이 약속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인류를 대변하는 아담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여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왔지만, 마지막 아담과 새 이스라엘로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여 인류에게 의와 영생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수동적 순종주창자들은 창세기 2:17이든, 레위기 18:5든 율법은 처음부터 의와 구원의 수단으로 주어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울러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7:2의 행위언약은 성경적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우신 의와 구원의 길은 율법의 길이 아닌 복음의 길, 곧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의 길로 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과 대등하거나 독립된 것이 아니라, 언약에 약속된 축복을 은혜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신분 유지에 합당한 도리일 뿐으로 봅니다. 이처럼 수동적 순종주창자들은 율법은 처음부터 이를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율법해석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주창자들과 수동적 순종주창자들 사이에 의견이 첨예하게 서로 다릅니다. 과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주창자들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수동적 순종주창자들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은 제 3의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날 한국 교계와 신학계에서 제기된 그리스도의 능동, 수동 순종에 대한 논쟁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한국 장로교단과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와 신학교 교수들이 신조로 받은 17세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작성 기간 때에 이미 신학자들 사이에 격렬하게 토론된 것입니다. 신조를 작성하는 중에 어떤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능동, 수동 순종을 반드시 신조에 포함할 것을 주장한 반면에, 다른 신학자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동적 순종만을 포함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랜 토론을 거쳐 실제 작성된 최종적인 신조에는 능동, 수동의 직접적인 문구는 생략되고,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문구로 작성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을 말하는 8장 5항에서 “주 예수는 하나님께 단번에 드린 그의 완전한 순종과 자신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공의를 만족시켰다”(필자의 사역)로, 칭의를 말하는 11장 3항에서 “그리스도는 그의 순종과 죽음을 통해 의롭게 된 모든 자의 빛을 충분히 담당하셨다”(필자의 사역)로 작성되었습니다.

만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완전한 순종과 자신의 희생”이나 “그의 순종과 죽음”이라는 말 대신에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란 문구를 직접 넣었다 라면 아마도 오늘의 논쟁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쉽게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의 신조에 있는 “(그리스도의)완전한 순종과 자신의 희생”이나 “그의 순종과 죽음”은 서로 분리되어 해석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과 희생을 통합시켜 해석될 수 있어 계속 논란을 남긴 것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순종 교리는 이미 17세기 교회 안에서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을 만큼 단순하지 않으며, 쉽게 해결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리스도와 율법과의 관계, 이신칭의 등 기독교 구원교리의 핵심적인 내용의 이해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지나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남은 두 번의 강의를 통해, 그리스도의 순종 논쟁으로부터 제기된 이슈에 대하여 주요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강의를 마치면서 이 강의를 청취하는 독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7세기 웨스트민스터 신조 작성 기간 중에 참여한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순종해석과 관련하여 서로 격렬한 논쟁을 벌였지만 서로 의견을 달리한 상대방을 적대시하거나 이단으로 정죄하지 않고 형제자매로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순종과 관련하여 자신이 어떠한 입장을 택하거나 지지를 하든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상대방을 향해 결코 이단으로 정죄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리스도의 순종문제는 결국 성경해석 문제와 깊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해석에 있어서 저를 포함하여 그 누구도 나의 해석만이 항상 옳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해석의 왕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항상 겸손하여야 합니다. 저명한 구약학자였던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Edward J. Young 박사님은 그의 저서 *Thy Word Is True*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올바른 자세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해석자라면,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를 기다리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는 성경 해석자만이 아니라 성경해석을 듣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앞으로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남은 두 차례의 성경해석을 듣는 여러분에게, 베뢰아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것처럼”(행 17:11), 저의 성경해석이 옳은지 그런지를 성경 본문을 통하여 상고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마칩니다.

II.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가?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강의에서는 그리스도의 순종 논쟁에 있어서 중요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성경 본문은 로마서 3:21-26과 5:17-19입니다. 이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중요한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과연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으로부터 율법의 순종을 서로 구분 혹은 서로 분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수동적 순종으로부터 사죄의 의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율법 순종으로부터 영생의 의 등 두 의를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죄와 구원과 영생이 포함된 하나의 의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세 번째 강의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1. 로마서 3:21-26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²¹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²²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²³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²⁴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²⁵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²⁶

로마서 전체의 구조 면에서 보면 3:21-26은 주제 구절인 1:16-17의 해설 문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3:21-26의 문단에 1:16-17의 주제 구절을 구성하는 중요한 어휘들인 ‘하나님의 의’, ‘나타나다’, ‘구원’, ‘믿음’, ‘모든 사람’ 등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제 구절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3:21-26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가 로마서 3:21-26문단을 “로마서의 축소판,” 혹은 “바울 복음의 심장”으로 봅니다.

바울은 3:21-26에서 로마서 전체 내러티브를 통해서 그가 제시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질문과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 문단에서 그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전 인류(1:18-3:20)에게 하나님 편에서 구원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면, 무엇 때문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게 되는가?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구속과 화목제물, 칭의(稱義)는 각각 무엇을 뜻하는가? 믿음은 무엇을 뜻하며, 믿음과 하나님의 의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등등, 기독교 구원교리의 핵심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구약성경을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의’(3:21)

1:18-3:20의 인류의 범죄와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내러티브는 3:20의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 종결됩니다. 이 결론적 구절에서 바울은 율법이 인류가 처한 비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사실을 강조합니다. 즉 율법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의를 줄 수 있는 수단이 아니고,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3:21 이하의 문단에서 바울은 “그러나 이제는”이란 말과 함께 인간의 불순종과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율법과 무관하게 마련된 하나님의 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문구는 주제 구절인 1:17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다”와 로마서의 결언 구절인 16:25-26의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와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평행 문구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율법을 통한 의의 길이 실패로 돌아가자 마련한 차선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의 길은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인 영세 전부터 마련되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복음처럼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성경을 통해서 계속 증거되어왔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복음과 동의어처럼 사용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8에서도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라고 말하면서, 의와 복음을 동의어처럼 사용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복음이 전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바울이 로마서 1:2-4에서 하나님의 의를 동반하는 복음(1:17)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포함하여,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그리스도의 전 생애와 전 사역을 복음으로 말하고 있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가져오는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만이 아니라,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의 성육, 세례받음, 마귀로부터의 시험, 제자 선택과 교육, 치유사건과 이적, 죄용서와 하나님의 나라 도래 선포와 설교, 율법 순종과 성취, 성전청결, 마지막 만찬, 제자들에게 사랑의 새 계명 주심, 게셋마네 동산의 기도, 수난과 배척,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등이 모두 복음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수난과 배척은 십자가 사건에서 비로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성육에서 시작되어 계속 진행되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빌 2:6-9).

그리스도는 십자가 사건에서 비로소 우리의 구원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출생 때부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자였고(마 1:23),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이였습니다(요 1:29). 그리스도는 십자가 사건에서 비로소 죄 용서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이미 공생애 기간에 죄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막 2:5). 그는 십자가 사건에서 비로소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침으로,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냄으로, 하나님의 나라 도래를 선언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 사건에서 비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마 3:15). 복음서 저자들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리스도의 전 생애와 사역의 최고 절정과 완성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의와 구원을 가져오는 복음은 십자가 사건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 생애와 사역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의 삶과 십자가의 삶을 분리하거나(능동 순종 주장),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 사역을 지나치게 십자가 사건에만 집중하는 것(수동 순종 주장)은 다 같이 옳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3:22)

바울은 3:21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음을 말한 다음, 3:22에서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미 주제 구절인 1:17에서 하나님의 의를 신자의 철저한 믿음을 강조하는 문구인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통하여”와 연결을 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3:22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일종의 강조를 위한 이중적인 믿음 문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과 연결을 시킵니다. 즉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이 3:22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믿음’(이하 ‘믿음-그리스도’) 문구를 목적 속격인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믿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주격 속격인 그리스도의 신실성,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보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믿음-그리스도’ 문구에 대하여 구원론적 접근이 아닌 기독교적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적지 않은 영어 성경도 ‘믿음-그리스도’ 문구를 전통적인 “faith in Christ” 대신 “faithfulness of Christ”로 번역하기도 합니다(예, CEB, ISV, NET, RGT 등). 하지만 저는 ‘믿음-그리스도’ 문구를 그리스도의 신실성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믿음으로 보는 것이 본문과 전후 문맥에서 볼 때 옳다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저의 최근 논문 “*Pistis Christou*는 어떻게 번역되어야 하는가?-로마서 3장 22절의 *Pistis Christou* 구문에 대한 문맥적 접근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50 (2022. 4.), 141-173에서 자세하게 취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믿음-그리스도’ 구문이 처음 등장하는 3:22에서 바울이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서, 무엇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느냐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3:21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하나님의 의가 이제 나타났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3:22에서 언급되어야 하는 것은 3:21의 반복이 아니라, 3:19-20의 부정적인 율법의 길과 대조되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의에 이를 수 있는 새로운 긍정적인 믿음의 길이어야 합니다. 3:22에 동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본다면, 생략된 동사는 3:21에 있는 ‘나타나다’가 아닌, 갈라디아서 3:22b에 나타나는 유사한 ‘믿음-그리스도’ 문구에 있는 동사 ‘주다’로 보아야 합니다. 22절에 이어 나오는 23절의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는 구문과 24절의 수동태 분사절 “그들이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음으로”도 22절의 ‘믿음-그리스도’ 구문을 그리스도의 신실성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받는 수단으로 보게 합니다.

둘째, 로마서 3:22에 ‘믿음-그리스도’ 문구에 이어 “믿는다”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분사절이 나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분사절의 동사 “믿는다”의 주어가 신자를, 목적어가 사실상 그 앞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다면, 분사절 앞에 있는 ‘믿음-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믿음이 아닌 분사절의 주어인 믿는 사람의 믿음과 연결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셋째, 3:22의 ‘믿음-그리스도’ 구문에 이어 23절에서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필요성, 다시 말하자면 23절에서 1:18-3:20의 전 내용을 요약하여 범죄한 인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점은 바울이 22절에서 믿음과 관련해서 사용한 동일한 “모든 사람”을 23절에서도 사용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점에서 확인이 됩니다.

넷째, 3:30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

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호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믿음으로”와 “믿음을 통하여”라는 말은 ‘믿음-그리스도’ 문구의 단축어로서 3:26의 “예수 믿는 자를”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롭게 하는 근거가 아닌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와 “믿음을 통하여”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순종이 아닌 유대인과 이방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칭하고 있다고 한다면, 동일한 문단에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방편으로 언급된 22절의 ‘믿음-그리스도’ 문구와 26절의 ‘믿음-예수’ 문구는 기독교적 관점이 아닌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주격 속격 주창자들은 3:21-26의 중심 내용을 기독교에 두고 있지만, 사실상 3:21-26의 전 내러티브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순종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한 행위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의를 계시한 분도 하나님이고(21, 22절),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을 통해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24절), 그리스도 예수를 공개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 화목제물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25a), 이를 통해 의를 드러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25b, 26a),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26b). 이처럼 3:21-26의 전체 내러티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그리스도’ 문구를 전체의 흐름과 배치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순종’으로 읽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3) “하나님의 의의 성취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3:24-26)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라는 이유 접속사를 동반하는 3:23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면서, 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필요하는 이유를 밝힌 다음, 3:24-26에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성취되었는가를 설명합니다. 먼저 3:24-26의 전체 흐름을 살펴보면, 3:24-26 이하는 가까운 인류의 범죄와 그 결과를 말하는 23절과 조금 멀리는 21-22절과 연결이 됩니다. 즉 3:24-26은 한편으로는 23절에서 말한 인간 편에서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을 하나님 편에서 가능하게 하신 역사적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3:24-26은 가까운 3:22에 말한 모든 사람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으며, 멀리는 3:21이 말한 하나님의 의의 나타남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의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말합니다.

3:24-26의 문장이 바울 복음의 핵심을 말할 만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3:24에서 현재 수동태 분사 ‘그들을 의롭게 하심으로’를 사용하여, 3:23에서 말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값없이 그들을 의롭게 하신다는 것과 그가 의롭게 하시는 사역은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속량)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1:17에서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했지만, 3:24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세우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직접 연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 한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24절), 이를 가능하게 하려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속량)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였다는 것입니다.

관계대명사 절로 구성된 3:25-26의 긴 문장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 사역의 목적과 그리고 그 결과를 말합니다. 이 긴 문장을 통해서 바울은 그가

3:21-22에서 말한 하나님의 의를 더 확실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24의 그리스도 예수를 수식하는 3:25-26의 관계대명사 절을 살펴보면, 주어는 하나님이고, 동사는 단순 과거 중간태 ‘공개적으로 세우다’이고, 목적어는 두 가지인데, 직접목적어는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이고, 간접목적어는 ‘속죄’ 혹은 ‘화목제물’로 번역되는 헬라어 ‘히라스테리온’입니다. 그리고 ‘히라스테리온’은 그다음에 나오는 두 전치사 구 ‘믿음으로’와 ‘그의 피로’로 수식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오는 두 목적 전치사구 ‘하나님의 참으심 가운데서 전에 지은 죄들을 잠정적으로 간과한 것에 대해 그의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와, ‘그가 의롭고, 그리고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기 위하여’는 다 같이 주동사 ‘공개적으로 세우다’를 수식하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히라스테리온’으로 공개적으로 세운, 이를테면 십자가 사건을 마련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구약의 속죄 제사로 인해 잠정적으로 용서해준 일에 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화목/속죄 제물로 삼아 그들의 죄에 대하여 단번에 심판하시고 용서하심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셨다고 말합니다.

둘째, 바울은 하나님께서 속죄/화목제물로 세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지금 이때 자신의 의를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셋째, 바울은 하나님께서 속죄/화목제물로 세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자신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과,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공개적으로 속죄/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을 십자가 사건으로 이해한다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의가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잊지 않아야 할 사실은 바울이 두 종류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의 의인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는 점입니다. 물론 이것이 십자가 사건 전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거나, 십자가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순종적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희생적 순종에 합당한 무죄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 어느 것 하나도 그의 십자가 사건과 무관하거나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새로운 생애의 시작이라기보다도 그 이전 생애의 모든 완성이요 절정이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이제 3:24-26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말하는 3:24-26절에서 22절에 말한 하나님의 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무슨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설명합니다. 먼저 24절 상 반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값없이 죄인들, 곧 23절의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구원 사역의 의인 동시에,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신칭의임을 말합니다. 그런 다음 24절 하반 절과 25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왜 하나님 자신의 사역인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인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마련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나타난 ‘구속’과 그의 피로 인한 ‘화목/속죄 제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25절 하 반절과 26절에서 구속과 화목/속죄 제물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다시 설명합니다.

우선 24절과 25절에 나타나 있는 ‘구속’(개역개정은 ‘속량’)과 ‘화목/속죄 제물’(개역개정

은 ‘화목제물’, 표준 역은 ‘속죄제물’)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요?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먼저 24절의 ‘구속’(‘아폴루트로시스’)이란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의 희생을 통해 구속[해방]한 사건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출 6:6; 신 7:8; 9:26; 15:15; 시 77:15; 사 51:11). 하지만 로마의 크리스천들이 ‘구속’(救贖)이란 말을 들을 때, 그들은 구약적인 해방의 의미와 함께, 또한 헬라-로마 사회의 노예시장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구속’(속량), 곧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된 종의 몸값을 그 종의 주인에게 지불하고 그 종을 자유인으로 해방한 일을 연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당대 노예시장에서 노예에 대한 몸값, 곧 속전금(贖錢金)을 지불하고, 그 종을 자유롭게 하는 단어인 ‘구속’이란 말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롬 8:23; 고전 1:30).

다시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가 된 죄인(1:18-3:20, 23)을 의롭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죄값을 대신하는 속전금으로 지불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이 사용한 ‘구속’이란 말을 구약적인 배경이든 헬라-로마적인 배경이든 한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양면적인 배경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속전금)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많은 사람의 죄값을 대신하는 속전금으로 지불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마셔야 할 잔, 곧 십자가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대신 지불을 하였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금을 받으시고 우리를 죄와 죄책으로부터 구속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들어내셨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여 25절 상반 절에서 “하나님이 그의 피로 세운 화목/속죄제물”(‘히라스테리온’)이라고 말합니다. 24절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란 말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헬라-로마적 배경으로부터의 설명이라면, 여기 “하나님이 그의 피로 세운 화목/속죄제물”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철저한 구약적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화목제물’, 혹은 ‘속죄 제물’로 번역되는 헬라어 ‘히라스테리온’은 구약의 속죄를 위한 희생 제사에서 사용되는 ‘속죄소’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히 9:5).

본래 ‘속죄소’는 구약에서 성막의 가장 중요한 지성소 안에 비치되는 법궤 위에 있는 금속판을 가리킵니다(레 16장). 대제사장 아론은 일 년에 한 번씩 대 속죄일에 먼저 자신과 자기 가족을, 그다음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속죄를 위하여, 각각 흠 없는 수송아지와 염소를 속죄 제물로 삼아 도살하고, 그 희생된 피를 취하여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렸습니다. 속죄소 위와 앞에 뿌려진 피는 아론과 백성들의 죄를 지고, 그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맞아 죽은 송아지와 염소의 희생적인 죽음의 결과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뿌려진 피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인 십자가 사건에 대한 해석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적 죽음을 설명하고 있는 ‘속죄소’를 개역 개정은 “화목제물로”로, 표준 역은 “속죄 제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1:18)를 진정시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이 우리의 죄를 덮거나 깨끗하게 하여, 즉 속죄와 죄 용서를 가져옴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도록 하였음을 강조합니다.

어떤 학자는 후자가 옳다고 보고, 어떤 학자는 전자가 옳다고 봅니다. 구약적 배경을 자

세히 살펴보면 속죄 제사에서 사용되는 희생 제물의 피는 도살된 희생 제물의 결과입니다. 희생 제물이 성소 밖에서 도살되는 것은 희생 제물로 선택된 그들이 속죄를 원하는 범법한 자의 쫓겨난 사망을 대신 받는 것을 뜻합니다. 즉 사람이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인 죽음의 심판을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진 짐승이 대신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죄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의 심판(롬 6:23)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도살된 짐승의 피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속죄소 앞에 뿌린다는 것은 이름 그대로 속죄, 곧 죄를 덮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히 9:13-14). 이처럼 구약의 희생 제물은 쫓겨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는 심판과 죄의 속죄와 새로운 관계 회복이라는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점을 기억한다면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을 ‘히라스테리온’으로 표현할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적 죽음이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의 심판과 속죄를 통한 새로운 관계 회복의 양면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전자를 우리의 율법 불순종의 범죄에 대한 예수님이 대신 쫓겨난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망의 심판을 받으신 수동적 순종으로, 후자를 우리가 마땅히 본래 수행하여야 함에도 하지 못했던 율법의 최고 목표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6:5) 또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야 할 것(레 19:18)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대신 수행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의를 드러내신 능동적 순종으로 본다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수동적 순종이며, 동시에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신 완전한 능동적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든, 능동적 순종이든, 같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어느 순간도 별도로 구분하거나 분리될 수 없습니다.

(5) “하나님의 의의 표현으로서 십자가 사건”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유효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공개적으로 세우셨을까요? 바울은 25절 하 반절과 26절에서 ‘공개적으로 세우다’ 동사를 수식하는 세 가지 목적절을 통해 십자가 사건과 로마서 전체의 주제어인 ‘하나님의 의’와 직접 연결을 시킵니다.

첫째, 25절 하반 절의 전치사 구절인,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前)에 지은 죄를 간과(看過)하신 것에 관하여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전치사 구절은 아담 이후 인류의 계속된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범죄에 대한 죽음의 심판을 즉각적으로 실행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을 잠정적으로 보류하셨다가, 그 보류하신 심판을 그리스도의 희생적-속죄적 죽음에서 수행하심으로 자신의 의를 들어내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말하자면 옛 언약 시대에 이루어진 모든 짐승의 속죄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가 선언되었다 하더라도, 그 속죄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다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기능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당한 짐승과 그 피가 하나님의 공의를 충분히 충족시켜주지는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에 대한 쫓겨난 오직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충분히 드러나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을 가져오는 자비와 사랑의 의뿐만 아니라, 징벌과 심판을 가져오는 공의의 의도 충분히 드러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 한편으로 잠정적으로 보류했던 인류의 범죄에 대한 그의 진노와 심판을 수행함으로써, 다른 한편으로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을 지키심으로 그 자신의 의를 들어내고, 입증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담을 위시한 옛 언약 백성에 대한 완전한 죄책에 대한 면제와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서 비로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일찍이 창세기 3:15과 12:2-4이 시사한 의미일 것입니다.

둘째, 바울은 계속해서 26절 상 반절에서 두 번째 전치사 목적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세우신 것은 “지금 이 때에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잠정적으로 보류한 것에 대한 그의 의를 들어내신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에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면제와 죄 용서를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를 드러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바울은 26절 하 반절의 부정사 구절을 통해 십자가 사건의 목적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립니다: “그 자신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자신이 의로운 분이심을 나타내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심을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일찍이 아담에게 금지한 선악과를 먹을 경우, “반드시 죽으리라”(창 2:17)라고 하신 죽음의 심판 언약뿐만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구원의 언약을 지키심으로 자신의 언약적 신실함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보류되어왔던 옛 언약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과 그들의 구원을 가져온 하나님의 의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며,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확증한 사건입니다.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든, 지금 그 성취를 믿는 사람이든, 한편으로 그들의 불순종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의가 확증되는 의의 사건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온전하게 충족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최고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의를 세우신 이 십자가 사건의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현재나 미래에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처럼 정의와 구원은 현재든 미래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의한 것이지, 그 어떤 사람의 행위, 그 어떤 사람의 율법준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3:21-26의 문단에서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앞에서 이미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이 문단에서 전체적으로 거듭거듭 강조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동성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수동적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의를 마련하신 분도, 의를 나타내신 분도,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도, 의를 드러내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세우신 분도,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 구속과 화목과 속죄를 마련하신 분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모든 문구의 주어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근거와 방편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의와 구원 사역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행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3:21-26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동성을, 반면에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을 강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울이 로마서에서 십자가 사건을 단순히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의 표현으로만 말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곧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로마서

5장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3:21-26을 떠나면서 최근의 그리스도 순종 논쟁과 관련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자체가 능동적, 수동적 순종의 양면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의도 이 양면의 순종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3:21-26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의 의인 하나님의 의를 강조할 뿐, 소위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과 별도로 그 자신의 율법 순종을 통하여 획득한다고 하는 영생의 의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2. 로마서 5:17-19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다(17).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18).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19).

바울은 아담의 불순종과 그리스도의 순종을 서로 대조시키는 5:12-21의 문단에 들어가기에 앞서 5:6-9에서 3:21-26에서 설명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간략하게 다시 언급합니다. 5:6-9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에서 단순히 수동적 역할만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를 문장의 주어로 삼아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에서 능동적 역할을 하였음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 관점만이 아닌, 또한 능동적 순종 관점에서도 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말하자면 그가 로마서 서언에서 하나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한 것처럼, 하나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 양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바울은 이점을 5:17-19에서 아담의 능동적 불순종 및 그 결과와 대조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그 결과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5:17-19는 5:12-21의 더 큰 문단에 속하기 때문에 5:17-19에 들어가지기 전에 전후 문맥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연대성의 원리: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그리스도

잘 알려진 대로, 로마서 5:12-21의 핵심적인 내용은 인류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그리스도와의 대조입니다. 옛 세대, 곧 죄와 죽음의 시대를 대변하는 아담의 불순종과 의와 생명의 새 시대를 대변하는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의 순종과의 대조입니다. 단순한 수평적 대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이 아담과 그의 사역이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보다 훨씬 더 크고 넓고 깊은 결과를 가져오는 비교급의 대조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 한 사람의 하나님의 계명(창 2:17)에 대한 불순종을 통해서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와 죽음의 세력이 모든 후손과 첫 창조 세계를 지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전 인류와 세상에 불순종/죄/정죄/허물/죽음이라는 어둡고 무서운 부정적인 영향과 결과를 가져왔다면, 이와 대조적으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전 인류에게 아담이 가져온 결과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더 높고 더 귀한 순종/은혜/의/은사/생명이라는 새로운 창조와 회복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아담과 우리(옛사람), 그리스도와 우리(새사람)를 연결하는 이와 같은 주장의 근거에는 헤브라이즘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인 연대성 혹은 대표성의 원리가 놓여있습니다(참조 창 12:2-3; 수 7:1).

헬레니즘에서는 개인이 중요성을 가진다. 개인의 인권과 책임이 강조된다. 그러나 헤브라이즘에서는 개인의 인권과 책임이 무시되지는 않지만, 개인보다 공동체나 민족이 더 강조된다. 한 가정의 가장이나 민족의 지도자 행동 여하에 따라 그 가정이 자자손손 복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한다. 왜냐하면 그는 개인이 아니라 한 가정이나 민족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대표자라기보다도 모든 가족이나 민족의 구성원이 대표자에게 연대하기 때문에, 대표자의 행동에 그 구성원이 참여하고 있다고 본다. 창세기 12:2-3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도 이와 같은 대표성과 관련되어 있다. 여호수아 7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수 7:1)고 진노하여 아이성 함락을 실패하게 하신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5:12 이하에 나타난 바울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헤브라이즘의 대표나 연대성의 원리를 알고 있어야 한다.

(2)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과 그리스도의 순종 대조와 그 결과

바울은 5:15 이하에서 바울은 본격적으로 인류 역사를 대변하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이들이 인류에게 각각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아담은 그의 불순종으로 인류 역사에 죄와 죽음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면, 그리스도는 그의 순종하심으로 아담의 모든 부정적인 영향을 치유하고 역전시켜 의와 생명과 은혜의 더 밝고 더 희망찬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아담의 범죄는 많은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에게 더 풍성한 은혜의 선물을 가져왔습니다(15절). 그리스도가 가져온 은혜의 선물은 아담이 가져온 죽음을 능히 극복하고도 남을 만큼 더 크고 풍성합니다.

둘째, 아담의 범죄는 심판과 정죄를 가져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은혜의 선물은 오히려 많은 범죄자를 의롭게 하였습니다(16절). 그리스도가 주는 은혜의 선물은 심판과 정죄 아래에 있는 자들을 오히려 의롭게 할 만큼 더 능력이 크고 풍성합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정도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첫 창조 때에 주어진 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셋째, 한 사람 아담의 범죄는 죽음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하였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의 선물은 생명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하였습니다(17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선물은 죽음의 지배를 받는 자들을 해방하여 생명의 지배를 받게 할 만큼 더 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5:18-19절에서 바울은 이미 15-17절에서 언급한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와 그들이 각각 인류에게 미친 상이(相異)한 결과를 다시 요약하여 진술합니다.

첫째, 아담 한 사람 불순종의 행동은 많은 사람(원문은 ‘모든 사람’)을 정죄에 이르게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의 행동, 곧 그의 십자가의 희생적 죽음은 많은 사람

에게 생명을 주는 의롭다함을 가져왔습니다(18절). 여기 많은 사람을 정죄에 이르게 한 아담의 한 범죄, 곧 그가 하나님께서 금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의 행위와 대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는 19절에 있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병행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을 “생명의 의”로 인도한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는 십자가 이전의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보다도,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의 순종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25-26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자신의 의를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18절의 “한 범죄”와 19절의 “한 사람의 불순종”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한 선악과를 먹은 특정한 행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와 평행을 한 18절의 “한 의로운 행위”와 19절의 “한 사람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구체적인 순종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이것이 십자가 이전의 예수님의 순종적 삶이 무의미하거나 우리의 의와 구원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 순종 중 그 어느 하나도 그의 십자가의 순종과 무관하거나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모든 삶과 순종의 완성이요 절정임이 분명합니다.

이점은 빌립보서 2장 6-11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유명한 기독교적 찬양시를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6-8에서 그리스도의 성육과 낮아지심의 순종을 최종적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일치시킵니다: “그[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6),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7),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8).” 이 구절은 잘 알려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낮아지심의 극치를 보여주는 유명한 서사시입니다.

바울은 먼저 6절에서 그리스도는 성육 전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리스도는 그러한 동등됨을 당연히 계속 누려야 할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7절에서 그리스도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곧 스스로 자신의 모든 이익을 다 배제하고, 낮아지신 모습인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8절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더욱 낮추어 죽음에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로마서 5:19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어근의 단어인 순종의 어휘(개역 개정은 ‘복종’)로 표현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로마서 5:19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바울이 5:17-19의 문단에서 아담의 능동적인 불순종인 하나님이 금한 선악과 금지 명령을 어긴 불순종과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십자가의 순종을 대조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생애를 둘로 구분하여, 십자가 이전의 삶을 율법에 대한 능동적 순종으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수동적 순종인 것처럼 도식화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선악과 금지법을 어긴 아담의 능동적인 불순종과 대조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순종은, 한편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불순종의 죄값을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할 수동적 순종인 동시에, 또한 인류를 대변하는 아담과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성취한 것으로써, 하나님의 법에 대한 최고의 능동적인 순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담의 불순종이 하나님이 금한 선악과를 따서 먹음으로 하나님의 정한 법을 의도적으로 어긴 구체적인 행동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여기 그리스도의 순종은 많은 사람의

구속을 위해 반드시 실행이 필요한 죽음의 심판 법,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한 “반드시 죽으리라”(창 2:17)라는 하나님의 정한 법을 따라 범죄한 많은 사람이 반드시 받아야 할 죽음의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대신 받으신 구체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관련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53:6),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53:8),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53:10),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53:11)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순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그들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담당한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둘째,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이 많은 사람을 죄인 되게 하였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오히려 죄인이 된 많은 사람을 의인이 되게 한다(19절)고 말합니다. 여기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라는 것은, 18절 후반 절의 “모든 사람을 생명의 의로 인도한다”라는 말과 평행을 하는 데,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실제로 의인이 되는 것, 곧 칭의를 받는, 혹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가 신자에게 전가 되는 것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칭의는 현재적인 동시에 미래적이며, 사죄와 구원과 영생을 다 포함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각각 모든 사람(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특성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긍정적 사역은 아담의 부정적인 모든 사역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더 크고, 더 넓고, 더 능력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의 능동적 율법 순종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없이 십자가의 수동적 순종만으로는 단지 옛 아담과 첫 창조의 상태로 돌아간다고 보는 것은 어떤 경우든 옳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은 우리에게 범죄 훨씬 더 나은 상태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자체가 율법의 전적인 순종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3:21-26과 5:17-19의 성경 본문의 해석을 통해, 그리스도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인류의 죄와 그 죄값인 사망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여 그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십자가 사건에서 그의 의를 온전하게 나타내셨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최고 목표인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하게 사랑하심으로 온전하게 율법을 성취(순종)하시고,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 필요한 온전한 의를 이루신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의 사랑의 의를 온전하게 나타내신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롬 5:8).

만일 우리가 이 두 번째 강의를 통해 확인한 성경본문 해석이 옳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율법 순종을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 주장이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단 번에 우리를 위한 죄용서와 영생의 의를 이루신 하나의 하나님의 의를 보지 못하고, 속죄를 통한 의와 율법 순종을 통한 영생의 의로 양분하는 능동적 순종 주장이 다같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점을 마지막 강의에서 살펴볼 율법에 대하여 말하는 창세기 2:17, 레위기 18:5, 갈라디아서 3:12, 그리고 로마서 8:2-4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III. 율법의 용도와 그리스도의 율법 성취(순종)

우리는 세 번째 강의에서 먼저 율법의 용도와 관련하여 창세기 2:17, 레위기 18:5, 그리고 갈라디아서 3:12를 중심으로 율법이 과연 순종하는 자에게 의와 영생을 약속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다음 로마서 8:2-4를 중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순종)한 것이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율법은 과연 그것을 순종하는 자에게 의와 영생을 약속하고 있는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주창자들은 창세기 2:17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행위언약으로, 그리고 이 행위언약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경우 영생을 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레위기 18:5의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얻지 못한 영생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율법을 순종하심으로 영생을 획득하셨으며,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그리스도로부터 이 영생의 의를 전가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장 고신총회는 2022년 9월에 개최된 총회에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가 보고한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보고서를 총회의 신학적 입장으로 받아들였는데, 이 보고서 6항은 이렇습니다.

6. 능동적/수동적 순종의 구분은 행위언약을 통해서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은 아담 및 그의 후손과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제7장 2항) 하지만 우리의 조상 아담은 순종하는 데 실패하였고 그 결과 율법의 심판과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죄인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의 형벌을 다 받아야 하고, 또한 율법이 요구하는 의무를 다 순종해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두 가지를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다 성취하셨다.

심지어 고신 보고서 6.2항은 아래와 같이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율법 순종이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동적 순종만 있다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지 못한 아담의 상태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2. 만약 그리스도의 순종이 순전히 수동적인 측면만 있다면 우리는 단순히 아담의 상태로 돌아갔을 것이다.

이 상태에서 구원받은 신자가 죄를 짓는다면 다시 율법의 형벌을 또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무를 완전히 순종하였다. 예수님은 율법을 단지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마 5:17) 그는 나서서 죽으실 때까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고전 1:30) 이 완전한 순종이 믿음으로 우리가 전가가 될 때 우리는 완전한 의를 소유하게 된다. 이 순종을 수동적 순종과 구분하기 위해서 능동적 순종이라고 한다.

합동 신학대학원 역사신학 안상혁 교수님 역시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의 전가』에 수록한 논문 “레위기 18 장 5 절에 대한 교회사적 고찰” 결론에서, 레위기 18:5가 말하는 ‘내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지칭하고 있으며, 그리

고 율법을 준수하는 자에게 약속한 ‘살리라’는 말을 아담에게 율법 순종의 경우 약속되었던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8:5 가 율법 준수자에게 약속한 “살리라”를 영생으로 해석하는 것이,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를 위시하여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의 일관적인 입장임을 주장합니다. 안 교수님은 우리가 율법 준수에 의한 의와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은, 율법 그 자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지 못하는 타락한 우리 인간의 연약과 무능력 때문이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시고, 그 공로로 얻은 의(영생)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다고 주장합니다. 안교수님의 레위기 18:5 에 대한 주장을 직접 들어봅시다.

첫째, 과연 “살리라”가 의미하는 생명은 어떤 종류의 생명인가?.. 유대교 전통과 초대교회(오리겐) 때부터 중세(아퀴나스)와 종교개혁(칼빈)을 거쳐 후기 종교개혁기(스위스 일치 신조)에 이르기까지, 또한 오늘날 리델보스와 같은 성경 신학자에 이르기까지 레위기 18 장 5 절에서의 생명은 주로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약속된 ‘영원한 생명’으로 이해되어왔다. 둘째,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율법과 복음’의 해석 원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주지하다시피 아우구스티누스는 ‘문자와 영(혹은 율법과 복음)’의 관점에서 레위기 18 장 5 절이 ‘율법(문자)의 의’를 대표하는 구절로 이해하였다...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은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에게 계승되었다... 셋째,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의 행위 원리 혹은 율법의 요구와 그리스도의 순종은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가? ...초대교회의 크리소스톰과 종교개혁자 우르시누스와 칼빈, 그리고 17 세기 제네바의 튜레틴과 스코틀랜드의 루더포드 등...이들은 레위기 18 장 5 절에 제시된 율법의 요구를 온전하게 성취하신 당사자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지적한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혹은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에 순종하셨음을 공통적으로 강조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요구에 온전히 순종하심을 통해 일종의 공로적인 의를 확보하시고 이것을 신자들에게 값없이 전가해 주셨다.

그렇다면 과연 창세기 2:17 과 레위기 18:5 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주장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 순종에 대한 영생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먼저 창세기 2:17 을 살펴보고 그 다음 레위기 18:5 을 살펴보겠습니다.

(1) 창세기 2:17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주장자들은 창세기 2:17의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를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맺은 행위언약으로, 그리고 이 행위언약에는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경우, 정죄와 죽음의 심판을, 반면에 순종할 경우,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들어 있다고 봅니다. 창세기 2:17은 실제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가요? 이점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창 2:17의 본문 자체는 물론, 그 본문이 속해 있는 전후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창 2:17의 본문 자체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의 명령에 불 순종하는 경우 반드시 죽게 된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경우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직접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2:17의 전후 문맥이 이점을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2:17의 전 문맥을 살펴보면 창세기 1:1-25까지 다섯째 날까지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소개됩니다. 이 창조 사역은 1:25 하 반절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마감합니다. 그런 다음 1:26-31절까지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한 사역이 소개됩니다. 세

부적으로 보면 1:26-27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중 유일하게 사람을 자기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다음 구절인 1:28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을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장의 끝 절인 31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함하여 6일간의 모든 피조물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2장에 들어가면서 먼저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사실이 언급됩니다(2:1-3). 이어 2:4-15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동산에 살게 하신 사실이 소개됩니다. 이어 2:17의 전 절인 2:16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에덴동산의 축복을 먼저 언급합니다. 이 축복에는 에덴동산 가운데 있는 영생을 줄 수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2:9, 3:22). 그리고 2:17의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2:17의 후 문맥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신 사실이 소개됩니다(2:18-25). 그다음 3:1-6까지 아담의 아내인 하와가 뱀으로 등장한 사탄의 유혹을 받아 먼저 하나님께서 금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도 아내가 준 선악과를 먹어 함께 범죄 한 사실이 소개됩니다. 이어 3:7-24까지 하나님께서 범죄 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되, 그들이 영생하지 못하고 흠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선언과 함께, 영생을 주는 생명 나무가 있는 에덴동산으로부터 축출됩니다.

이처럼 창세기 2:17의 전후 문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명령에 불순종할 경우,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약속은 하셨지만, 그 명령에 순종할 경우,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후 문맥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피조물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을 맡았다는 것, 그리고 영생할 수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다는 사실만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타락 전 에덴동산에 살았던 아담의 상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아담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영생을 줄 수 있는 생명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축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흠으로 돌아가는 죽음은 불순종의 결과이지 타락 전 아담에게 고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5:12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하면서 이점을 뒷받침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 후 이루어질 완전한 구속과 영생의 상태인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가리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21:3-4)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타락 전 아담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인 아담을 이미 그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아담은 이미 죽음이 없는 영생을 축복을 부분적으로 누리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충분한 영생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따라 미래에 주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미래에 주어질 충분한 영생도 하나님의 은총에 의존하는 것이지, 아담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아담에게 영생이 선악과 명령에 대한 순종을 담보로 약속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레위기 18:5이 율법 순종에 대한 영생의 약속을 하고 있을까요?

(2) 레위기 18:5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레위기 18:5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8:5의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는 구절이 율법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 “살리라”는 약속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레위기 18:5의 본문은 율법 순종에 대한 영생을 약속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 18:5의 내용이 에스겔 18:9, 20:11, 느헤미야 9:2, 마태복음 19:17, 누가복음 10:25-28에 암시되어 있긴 하지만, 직접 인용되고 있는 곳은 갈라디아서 3:12과 로마서 8:5 뿐입니다. 먼저 레위기 18:5의 본문을 살펴보고, 그다음 갈라디아서 3:12와 로마서 10:5의 레위기 인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8:5가 들어있는 레위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들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에 신실함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 구원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 그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위기 18:5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를 마땅히 수행하여야 하는 자이라는 언약의 문맥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점은 18:5가 속해 있는 전후 문맥을 볼 때 더더욱 분명합니다. 18:5가 속한 18:1-5의 전 문맥인 17:10-16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먹지 말라는 교훈과 함께 스스로 죽은 짐승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짐승을 먹지 말라는 음식 윤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후 문맥인 18:6-18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하는 가정의 성 윤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8:1-5의 문단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규정 문맥 안에 있습니다.

18:1-5 문단 자체를 보면 특이한 점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8:5의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인,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라는 말이 세 번(18:2, 4, 5)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십계명 서문에 있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출 20:2)는 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주시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즉 18:1-5의 문단을 시작하는 18:2와 이 문단을 끝내는 18:5b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신 언약의 하나님임을 선언하고, 이 두 선언 사이에 언약 백성에게 요구된 삶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18:3-5a).

이처럼 레위기 18:5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땅히 준수하여야 하는 언약 백성의 삶의 문맥에서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여기 동사 “살리라”는 문구가, 그 이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었든, 본래 문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준수를 통해 기대하는 미래의 종말론적인

의와 영생을 가리키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누리게 될 현 세상에서의 언약적 삶을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본문인 레위기 25:8의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와 신명기 4:40의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리고 신명기 30:16의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가 모두 이점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애굽 땅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사는 주민들의 실제적인 삶의 규정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이와 대조가 되는 “내 규례와 법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준수하여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규정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따르지 않아야 할 규정들이라면, 후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준수하여야 하는 규정들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내 규례와 법도”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지켜야 하는 율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언약적인 삶의 규정과 율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위기 18:5의 “살리라”는 본래 문맥에서 볼 때, 종말론적인 의와 영생의 삶이 아닌 약속된 가나안 땅에서의 언약적인 복된 삶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레위기 18:5를 그 자체의 본문과 문맥에 의해 해석하지 않고, 후기 유대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종말론적 해석을 레위기 18:5의 본문에 가져가서, 마치 레위기 18:5가 율법 준수가 의와 영생을 보장하는 것처럼 성급하게 해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레위기 18:5를 직접 인용하고 있는 바울은 “살리라”를 영생에 대한 약속으로 해석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레위기 인용이 거의 유사한 문맥에서 인용되고 있으므로, 갈라디아서의 인용만 살펴보겠습니다.

(3) 갈라디아서 3:12

“율법은 믿음에서 난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3:12 하반 절에서 레위기 18:5를 인용하여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는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레위기 18:5가 말하는 율법 준수에 주어지는 삶을 시내 산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에서의 언약적 삶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 당대 유대 문헌에 암시된 것처럼 종말론적인 의와 영생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레위기 18:5의 인용이 있는 갈라디아서 3:10-14의 문단은 3장의 중심부를 형성하면서 바울의 반대자들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반박과 논증이 나타납니다. 이 짧은 문단에는 바울의 논증을 뒷받침하는 구약 인용이 4번(10 절의 신 27:26, 11 절의 합 2:4, 12 절의 레 18:5, 13 절의 신 27:26, 21:23) 나타나고, 바울의 복음을 대변하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이야기가 나타납니다(3:13-14).

이제 바울이 레위기 18:5를 인용하고 있는 3:12b 본문의 전, 후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접한 전 문맥인 3:10-12a의 본문을 보면, 바울의 주장 제시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바울이 각각 3개의 이유 접속사 구절에서 구약 본문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는 3:10 상 반절에서 “하지만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명기 27:26,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를 인용합니다. 바울이 인용한 구약 신명기 27:26의 전후 문맥에 보면, 지켜야 할 율법의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 준행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특수한 생활 규범들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규범들을 철저히 지킨다면 약속된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한 전폭적인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되어 약속된 땅으로부터 축출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율법의 말씀”(히브리어 본문) 혹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헬라이어 본문)을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이라는 말로 변경시켜, 지켜야 할 규범을 모세의 전 율법 책으로, 그리고 해당이 되는 대상을 모든 사람으로 더 일반화합니다. 즉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요구’를 행하지 않는 ‘모든 자에게’ 저주를 가져다준다는 주장으로 확대를 합니다.

여기 저주는 사실상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으로부터의 제외됨, 곧 언약 백성의 신분 상실과 약속된 땅으로부터의 축출 및 그에 따른 심판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바울의 인용 본문에 따르면 설사 누가 율법의 일부를 지키더라도, 그가 모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는 이상, 그는 어쩔 수 없이 율법이 가져오는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 바울의 논점은 율법은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런데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는 율법을 그 누구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율법이 가져다주는 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다음 3:11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고 하면서, 율법이 저주를 가져오는 것은 인간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불순종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의의 길인 것처럼 율법 자체를 잘못 사용하는 것에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즉 바울은 3:11에서 3:10 하 반절의 신명기 27:26의 인용의 경우와 같은 이유 접속사 구문을 사용하여, 율법의 저주를 신명기 27:26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인용된 하박국 2:4처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결정한 의의 길은 믿음의 길인데, 하나님이 정한 의도와는 다르게 율법을 잘못 사용하거나, 율법에 믿음과 같은 의 용도를 부과하는 것도, 하나님의 저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3장 11절 상 반절에서 다시 이유 접속사와 함께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11절의 내용이 10절과 무관하지 않음을 암시합니다. 그런 다음 11절 하 반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하박국 2:4를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한 사람을 의롭게 하는 길은 율법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이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문제는 율법은 무슨 목적으로 주어졌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주기 위해 우선 3:12 상 반절에서 “율법은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율법의 기능과 믿음의 기능이 근본적으로 서로 다름을 밝힙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12 하 반절에서 레위기 18:5를 인용하여 믿음의 기능과 다른 율법의 기능, 곧 율법이 가진 행함의 기능을 말합니다.

바울이 인용한 레위기 18:5는 아마도 바울의 반대자들인 유대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주장하는 율법이 의와 영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해 사용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을 당

대의 유대교 종말 사상에 따라 율법을 통한 언약 백성의 신분에서의 가입과 그 유지와 그리고 그 결과인 의와 영생의 축복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였을 것입니다. 즉 그들은 “율법의 행함=삶(영생)”의 도식을 세웠을 것이고, 그리고 이 도식에 근거하여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통해 언약 백성에 가입하고, 계속해서 율법을 따라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 영생에 도달하도록 주문하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 당대 유대교 종말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제2 성전시대의 유대교 문헌들에 보면(CD III, 15-16; 4Q266, 11 1-11, 12; PSS. Sol. 14:1-5; cf. 4Q504; Philo, *Prelim. Studies*, 86-87), 레위기 18:5를 설명하면서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레위기 18:5를 종말론적인 영생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레위기 본문을 인용하지만, 그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레위기 18:5의 본문을 설명합니다. 즉 그는 “살리라”는 어휘가 나타나는 하박국 2:4의 경우, 3:14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게 된 그 복음의 의(창 15:6; 롬 4:6; 갈 3:8)가 이미 성취된 새 언약 전망에서 접근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레위기 18:5의 경우 하박국 2:4와 동일한 “살리라”가 나타나지만, 하박국 2:4와 달리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원리로 준 옛 언약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즉 믿음이 나타나는 하박국 본문은 새 언약 전망에서, 이와 대조적으로 율법의 행함을 말하는 레위기 본문은 시내 산의 옛 언약 전망에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행함을 요구하는 시내 산 율법을 옛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성취를 책임질 법을 새 언약으로 나누는 것은, 이미 예레미야서 31:31-33에 나타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에서 자신을 새 언약 성취자로 말씀한 사실(눅 22:20)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고전 11:25). 이 점은 그가 고린도후서 3장에서 모세를 옛 언약의 직분을 맡은 자로, 반면에 자신을 새 언약의 직분을 맡은 자로 말하고 있는 사실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박국 2:4를 새 언약 관점에서 인용하고 있다는 점은 로마서 주제 구절인 1:17 상 반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선언한 다음, 이를 입증하기 위해 1:17 하 반절에서 하박국 2:4를 인용하여,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는 바울이 하박국 2:4는 새 언약의 전망에서, 반면에 레위기 18:5는 옛 언약 전망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비록 레위기 18:5가 하박국 2:4와 동일한 “살리라”는 동사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같지 않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박국 2:4의 “살리라”는 새 언약 관점에서 종말론적인 의와 영생을 뜻한다고 볼 수 있지만, 레위기 18:5의 “살리라”는 본래의 문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옛 언약 전망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가질 언약적인 삶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갈라디아서 3:12의 레위기 18:5 인용을, 3:11의 하박국 2:4의 인용인 믿음을 통한 의의 길과 나란히 세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의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볼 경우,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 강조되는 바울의 논지는 무너지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반대자들인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은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 의와 구원을 가져다준다고 하면서 갈라디

아 교인들을 미혹하였습니다(갈 1:6; 5:4; 참조, 행 15:1). 하지만 바울은 이들의 주장을 거짓 복음으로 단정하면서(갈 1:7), 의와 구원은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的事实을 강조하고 있습니다(갈 2:16; 3:1-9).

심지어 그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반대하여,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갈 2:21),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갈 3:21)라고 하면서 율법은 결코 의와 구원의 길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갈라디아서 전체 논지에 비추어 볼 때 바울이 갈라디아서 3:12에서 율법이 믿음과 똑같이 의와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 레위기 18:5를 인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아래의 논문도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 1) F. Avemarie, F. “Paul and the Claim of the Law according to the Scripture Leviticus 18:5 in Galatians 3:12 and Romans 10:5,” *The Beginnings of Christianity: A Collection of Articles*, eds. Jack Pastor and Menachem Mor (Jerusalem: Yad Ben-Zvi, 2005), 138-41.
- 2) Douglas C. Mohrmann, “Of ‘Doing’ and ‘Living’: The Intertextual Semantics of Leviticus 18:5 in Galatians and Romans,” *Jesus and Paul. Global Perspectives in Honor of James D. G. Dunn. A Festschrift for his 70th Birthday*, ed. B. J. Oropeza, C. K. Robertson, and Douglas C. Mohrmann (London: T & T Clark, 2009), 151-172.

2. 로마서 8:1-44는 그리스도의 율법 성취(순종)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로마서 8:1-4에 대한 한글 개역 개정 본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1)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2)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3)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4).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와서 3-6장까지 가끔 언급했던 율법의 부정적 역할(3:20; 4:15; 5:20; 6:14)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의 법(7:22)으로서, 거룩하고, 의로우며, 생명에 이르게 하며, 선하고 신령하지만(7:10, 12, 14), 율법과 계명은 결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나를 해방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은 죄의 도구가 되어 나에게 죄를 알게 하고(7:7, 9), 그로 인해 나를 사망으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의와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줄 수 없는 율법의 한계와 무능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점은 바울이 로마서 8장 서두(3절)에서 7장의 상황을 요약하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이라고 말한 사실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7장으로부터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질문 중의 하나가, 그리스도의 율법 성취(순종)는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는 것입니다.

(1)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8장은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이 선언은 부정적으로는 7장에서 말한 율법 아래 있는 절망적인 자들과 대조를 이루면서, 긍정적으로는 3:21-7:5의 전 내용을 요약하는 7:6의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율법에서 해방이 되어 목은 율법이 아닌 새로운 성령으로 섬기게 되었다”라는 선언과 직접 연결이 됩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6장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자를 가리킨다. 그리고 “죄의 함이 없다”라는 말은 3장과 5장에서 말한 인류가 자신의 죄 때문에 마지막 날에 받게 될 그 종말론적인 정죄의 심판을 이미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더는 종말론적인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은 3:21의 “그러나 이제는”의 경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및 부활과 그리고 오순절 성령강림을 통하여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 하는 새로운 의와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종말론적인 선언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자들(6:1-11)에게는 더는 정죄함이 없는 선언이 이미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됨을 시사합니다(8:18-30). 바울은 이러한 선언을 통해서 7장의 죄, 육, 사망과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자의 어두운 면과 8장에서 소개할 그리스도, 성령, 생명의 지배 아래 있는 자의 밝은 면을 날카롭게 대조시킵니다.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가져오는 정죄함이 없는가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질문을 염두에 두면서 그 답변을 이유 접속사 ‘갈’을 동반하고 있는 8:2 이하에서 제시합니다.

(2)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8장 2절에서 바울은 1절의 선언에 대한 이유를 “왜냐하면(‘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 대한 이유를 다시 이유 접속사 ‘갈’을 동반한 8:3-4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절에 나타나고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바울이 같은 율법에 대한 다른 관점의 사용으로 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7장에서 이미 바울이 율법을 한편으로 거룩하고 신성한 “하나님의 법”으로 말하지만(7:22), 다른 한편으로 율법이 죄를 예방하기보다도, 죄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죄의 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점(7:23)을 볼 때, 양자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 바울이 여기서 같은 율법을 각각 다른 전장에서 말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율법을 옛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작용하지만, 새 언약 관점에서 볼 때 율법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의와 구원의 원리를 말할 때 율법이 결코 인간을 구원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과 관련하여, 율법을 ‘의’, ‘믿음’, 혹은 ‘성령’ 등과 날카롭게 대조시키면서, 율법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결코 율법의 무용론이나 폐기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3:31에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과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에게는 율법 무용론이나 폐기론이 아닌 오히려 율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옹호한다. 바울은 로마서 13:10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면서 새 시대에서도 율법은 사랑의 법으로서 성도들에게 여전히 유효함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도 5:14에서도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한 다음, 6:2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것, 곧 온 율법의 성취(갈 5:14)인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 그리스도의 법이 된 율법을 성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관계없이 옛 시대의 세력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 있어서 율법은 더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가 성취한 새 계명인 사랑의 법으로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위한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언제, 어떻게 율법을 성취하여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게 하였을까요? 그리스도의 율법 성취가 그의 십자가 이전의 율법 순종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아니면 십자가 사건에서의 순종을 지칭하고 있을까요?

(3) 율법의 무능력과 그리스도의 율법 성취

바울은 먼저 8:3a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좁게는 7:14-24가 말하고 있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있으며”, 죄 아래 팔린 나를 도울 수 없는 율법의 무능력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넓게는 1:18-3:20에 나타나 있는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인류와 이를 도울 수 없는 율법의 무능력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8:3b 이하는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인간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과 그리고 이를 도울 수 없는 율법의 무능력을 어떻게 반전시킨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8:3b는 우리가 이미 자세하게 살펴본 3:21-26과 5:12-21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과 연결이 됩니다.

바울은 먼저 8:3b의 분사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리고 죄를 위하여 보냈다”고 하면서, 3:21-26에서 말한 하나님의 능동성을 재차 강조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라는 것은 자기 아들을 범 죄 전의 아담의 모양이 아닌, 범죄 한 이후의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을 대신할 수 있도록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육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냈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4에서 이를 가리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7-8에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 역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히 4:15)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인 우리를 대신할 수 있게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예수님도 우리처럼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을 가진 자였지만, 다만 그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양이 아닌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로 왔거나, 설사 우리와 같은 자였지만 우리처럼 죄를 지었다면, 그는 우리를 대신할 수 없으며, 그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대신하는 죽음과 부활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오는 8:3c의 “죄를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것이, 3:24-25에서처럼, 그를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의 죄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속죄 제물로 보내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주절에 있는 “하나님이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낸 목적을 보여줍니다. 곧 죄인을 대신 할 수 있는 육을 가진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삼아 그에게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율법의 모든 요구(4절)를 성취하였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 구절의 배후에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신앙고백이었던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전 15:3)와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사 53:4-5)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를 가리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후 5:21)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에게 쏟아야 할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그리스도에게 쏟으셨다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그에게 우리의 죄에 쏟으실 심판을 쏟으심으로 죄의 세력을 무력화하였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그의 희생적 순종을 통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 우리를 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 곧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된 자는 더는 죄로 인한 정죄함이 없고(6:14; 8:1, 39), 오히려 그리스도의 성취를 통해 성취된 법이 된 성령의 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8:3은 8:1의 선언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자가 정죄함으로부터 자유 하게 된 것은, 신자가 행한 무엇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 주어진 이 정죄함이 없는 자유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8장 끝에 가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오”(8:33-34)라고 말하면서, 이 자유가 하나님이 보증하는 확실한 것임을 재확인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신자에게 주어진 이러한 자유와 보장이 신자에게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칭의는 성화와 무관하거나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8:4의 목적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8:4의 목적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가진 우리의 모양으로 보내어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삼으신 목적이, 우리가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 의해 이미 성취가 된 그 율법(8:3)의 요구가 계속 성취되도록 하기 위함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두 가지가 관심사로 부각됩니다. 하나는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때,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질문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율법의 요구는 그리스도와 무관한 율법의 요구가 아닌,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리고 이것은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율법의 요구”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르르 살펴보지요.

여기 “율법”이 모세의 율법을 지칭하는 것은 맞지만, 7:25에 나오는 “죄의 법”이나 8:2에 언급된 “죄와 사망의 법”을 가리키지 않고, 그와 대조가 되는 8:2의 “생명의 성령의 법”, 곧 그리스도에 의해 율법의 본래 목적이 성취되어 그리스도의 법(갈 6:2)이 된 그 법을 가리킨

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8:2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 말하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먼저 바울이 여기서 율법의 요구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닌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그것도 바울은 ‘성취하다’의 단어를 능동태가 아닌 가정법 단순 과거 수동태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태 동사가 사용된 것은 율법 요구의 성취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성취하다’의 동사가 사용된 것은, 3절에서 언급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 곧 우리의 육신으로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 율법의 모든 요구가 성취되도록 한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가정법이 사용된 것은, 갈라디아서 6:2의 경우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율법 성취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을 시사합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지요. 예수님은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크냐고 질문하는 한 율법사에게 신명기 6:5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레위기 19:18에 있는 이웃 사랑으로 요약한 다음(마 22:34-39),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3:8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갈라디아서 5:14에서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라고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야말로, 우리가 그것을 능동적 순종으로 보든, 수동적 순종으로 보든, 아버지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였고, 동시에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최고의 사랑을 실천인 셈이니 온 율법의 가장 완전한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성취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성취하리라)”(마 5:17-18)고 말씀하신 것도 이를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전에 전혀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을 포함하여 예수님의 전 생애를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죄인들에 대한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으므로, 율법에 대한 순종은 예수님의 성육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성경 저자들이 구약의 특수한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비로서 이루어진 사실을 말할 때 “성취하다”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예, 마 1:22의 이사야 7:14의 동정녀 탄생), 마태복음 5:17-18에 있는 “성취”와 로마서 8:4에 성취 어휘는 반복되는 사건을 가리키기보다는 종말론적으로 단 한 번 성취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완전한 율법 성취를 지칭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율법의 완전한 성취는 그를 믿는 신자들을 통해 재현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신자들 안에서 이루시는 주된 사역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성취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현하는 것입니다(롬 5:5).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하신 고별설교에서, 한편으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서로 사랑하라]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요 15:10)라고 하시면서 사랑의 새 계명을 주신 것도(요 13:34),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2에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서로 사랑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사랑

의 새 계명]을 성취하라”고 하신 말씀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사실상 십자가를 통해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성취를 재현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이 성취는 8:4의 수동태가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서 하나님, 곧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사랑하게 함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율법 요구 성취를 구현한다는 사실은 이미 로마서 5:5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8:4를 “그 영[성령]을 따라 [사랑을] 행하는 자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로마서 8:1-4에 있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볼 때,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적 죽음과 율법의 완전한 성취(순종)를 결코 구분하거나 분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적 죽음에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완전한 율법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십자가 사건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수동적 순종과 완전한 능동적 순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완전한 율법 순종을 구분 내지 분리하거나, 이와 반대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율법 순종으로부터 십자가 사건을 구분 내지 분리하는 것은 옳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전 생애 사역을 사실상 그의 수동적 순종인 동시에 능동적 순종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의 전 사역의 최고 절정이요 완성인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3. 강의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세 번의 강의를 통해 최근에 한국 장로교단에 제기된 그리스도의 순종과 관련된 능동, 수동 논쟁을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강의에서 제시한 우리의 성경해석이 옳다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주장이든, 수동적 순종의 주장이든 똑같이 장점과 동시에 약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 주장의 장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타난 하나의 의만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점과 그리스도의 율법 순종이 그의 십자가 순종이 가져오는 의와 대등한 또 하나의 의와 생명을 가져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점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 주장의 약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지나치게 집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통한 순종 역시 복음으로서 우리의 의와 구원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점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사역인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성취하였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와 대조하여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주장의 장점은 우리의 의와 구원의 근거를 그리스도 십자가의 순종에만 제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전 생애로 확대하고 있는 점입니다. 즉 복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선포로 제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전 생애의 선포로 확대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주장의 약점은, 창세기 2:17과 레위기 18:5이 율법 순종에 대한 순종에 영생의 약속을 보증하고 있는 것처럼 해석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순종이 가져오는 의를 그의 율법 순종을 통한 의와 십자가 순종을 통한 의로 양분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약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뒷받침이 없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인 율법 순종 없이 십자가의 순종만으로는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단지 죄 용서를 통한 타락 전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게 할 뿐이라고 쉽게 단정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최근의 가열되어 가고 있는 그리스도 순종 논쟁은 어떻게 극복되어야 할까요? 제 사견으로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두 주장은 서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논쟁을 주도한 신학대학원 조직신학과 역사신학 교수님들도 함께 노력하여야겠지만, 그동안 이 논쟁에 무관심했던 다른 분야의 교수님들, 특별히 성경 신학 분야의 교수님들이 관련된 성경 본문의 올바른 의미를 밝히는 주석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순종에 관한 논쟁이 이미 합동, 고신, 합신 교단 간의 논쟁으로 발전해 가고 있으므로, 목회자와 평신도들도, 마치 베뢰아 사람들이 사도들로부터 받은 말씀이 옳은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것처럼(행 17:11), 이 논쟁을 성경을 통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논쟁은 단순한 논쟁이 아니고, 종교개혁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서고 무너지는 문제인 구원론의 근거인 칭의론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논쟁과 관련하여 신학자들 교단이든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이단으로 몰고 가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난 17세기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때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주장하는 자들과 수동적 순종만을 주장하는 자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지만, 결코 서로 정죄하거나 이단 시비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이 이에 대한 좋은 교훈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2023년 장로교단 총회 때 그리스도의 순종과 관련하여 지난날의 총회 결정에 연연하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한 더 좋은 결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강의에서 혹시 제 성경해석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사실을 주석으로 밝혀 제게 알려주시면, 검토하여 옳다고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기존의 해석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3차례의 강의를 청취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